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사회와 감독으로 유명한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플래툰'은 여러모로 걸작 영화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작품이다. 베트남 전의 참사에 관한 영화는 수 없이 많이 만들어져 왔지만, '탐보'같은 아메리칸 영웅주의 시작에서 철저하게 벗어난 거의 최초의 영화였으며, 전쟁 자체보다는 전쟁 속의 인간에 관한 시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던 21살의 청년 크리스(찰리 선)는 자원입대하여 베트남 전에 참가하게 되고, 전쟁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불행은 해소하는 반즈 상사와, 전우를 앞세우는 엘리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베트남 전의 참사와 실체를 고발한다.

은 단번에 이 곡을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버렸다. 영상과 음악의 조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결합했는지, 이후로 이 곡은 다른 영화를 약으로 사용된 바가 없고, 오로지 영화 '플래툰'의 사운드트랙으로만 기억되고 있다.

원래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1935년 폴리처 장려금을 받아 이탈리아에 유학 중이던 바버가 작곡한 현악 4중주 1번의 2악장이다. 그는 후일 이 악장만 독립시켜 현악 오케스트라 용으로 편곡했는데, 이 곡의 진가를 알아본 거장 토스카니니에 의해 초연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로 레너드 번스타인에 의해 종종 연주되긴 했지만, 지나치게 어둡고 암울한 멜로디로 인해 연주

영화 '플래툰' 중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단 한편의 영화로 영원히 기억될 선율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엘리아스를 살해한 반즈가 헬기를 타고 주둔지에서 철수하는 장면이다. 죽은 줄 알았던 엘리아스가 총격 속에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헬기를 향해 두 손을 치켜들고 절규하던 장면. 영화의 포스터로도 사용된 유명한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처연하고 구슬리게 흐르던 그 음악이 바로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이다. 마치 '플래툰' 영화를 위해 작곡된 곡인 것처럼 감렬한 메시지와 어우러져 들려오던 현악의 선율

회 레파토리로 연주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영화 개봉이후 이곡의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져서 많은 연주회에서 즐겨 연주되고 있으며, 많은 지휘자들이 레코딩을 취할 때도 즐겨 연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미국적인 연주를 들려주는 지휘자는 바로 레너드 번스타인이다. 다소 과장된 포즈로 지휘하는 모습처럼 이 곡에서도 슬픈 감정을 누르지 않고 모두 쏟아내버리는 연주를 들려주는데, 곡의 미학적 정서보다 강렬한 슬픔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연주다.

건축물을 짓듯 이 곡이 가진 미학적 구조의 아름다움과 슬픔의 정서를 동시에 추구한 아름다운 연주는 바로 헝가리 출신의 지휘자 유진 오만디와 그의 수족 같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다.

필라델피아 사운드라는 오리지널리티를 창조한 유진 오만디의 해석은 확고하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색채감이 진한 현악 사운드를 기본 골격에 두고 갈수록 짓눌려온 슬픔이 터져나오는 곡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천천히 감정을 고조시켜간다. 마치 끊고 가벼운 수채화에서 두터운 유화로 그림이 변해가는 것처럼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곡을 다뤄간다.

이제는 이 곡이 영화 '플래툰'의 사운드트랙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사운드로 재창조된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리스트)



지역 문화예술 정보창고 '대인시장 아카이브'

"광주·전남 젊은 작가들,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해의 전시기획자나 미술계 인사들이 광주를 찾을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하소연이다.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아트페어 등 국제적인 문화 행사가 줄을 잇고 있지만 정작 지역 작가와 전시 정보 등 미술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말로는 '문화수도'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작가와 전시 정보에 대한 영문으로 된 기본적인 자료는 커녕, 프로필·전시경력·평론·작품사진·작가노트·인터뷰와 같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들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안 예술 공간인 '미테 우그로'가 대인시장의 역사·기록을 비롯, 광주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인시장 아카이브' 구축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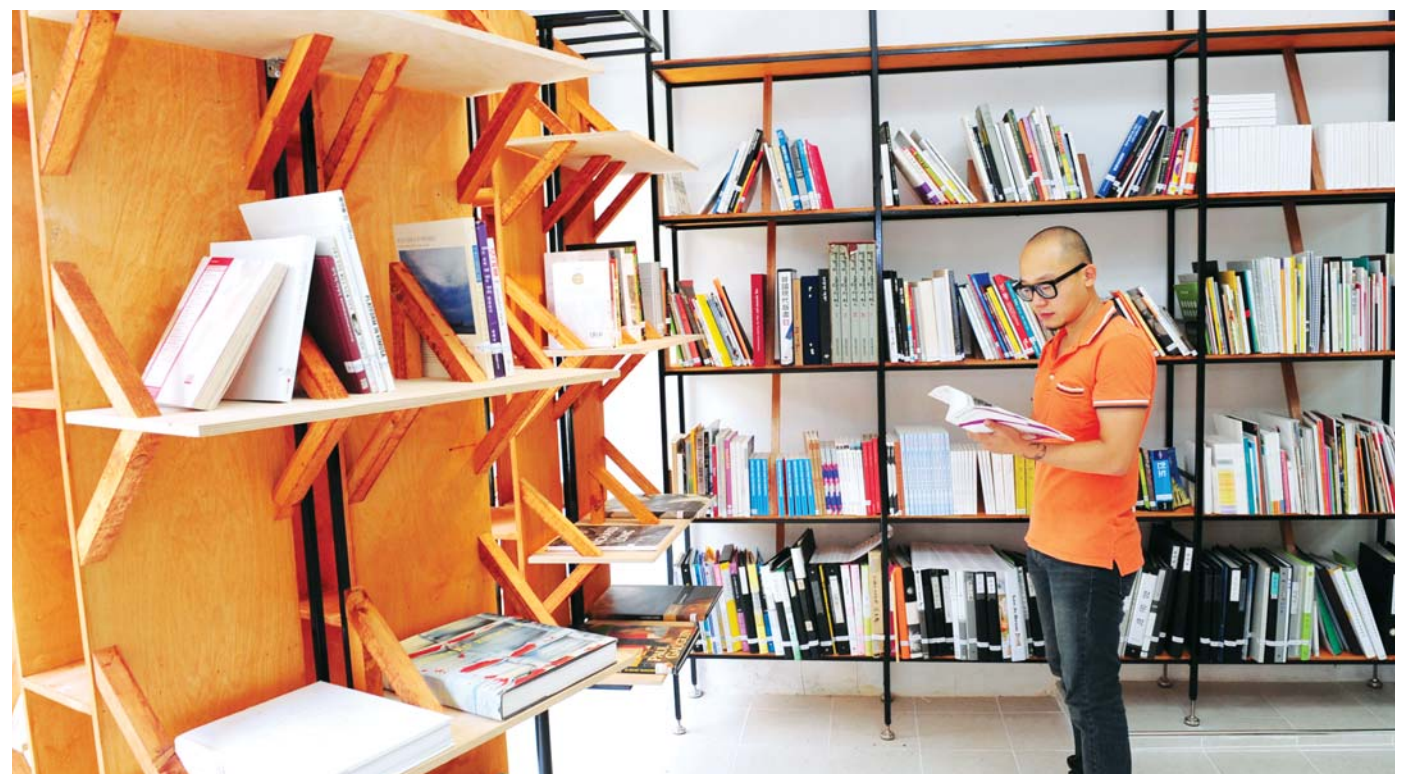
'2012 대인예술시장 너티나무숲'의 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사업으로, 우선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인예술시장 활동 기록과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작가들에 대한 기록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미테 우그로 10평 남짓한 공간에 1200권 상당의 기록물을 수집, 정리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부터 시장 역사·문화 프로그램 현황 및 관련 서적, 지역 젊은 예술가들의 포트폴리오, 작가 열정과 창작혼이 깃든 전시 캘린더, 평론 등을 모아 정리해놓았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영문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도 시동을 걸었다.

내년이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작가와



대인시장 내 조성된 대안 예술공간 미테 우그로에 마련된 '대인시장 아카이브'. '2012 대인예술시장 너티나무숲'은 1000만원을 지원, 아카이브 구축 공간 마련에 도움을 줬다. /니령주기자 mjna@kwangju.co.kr

작가·전시정보 등 수집, 온·오프라인 미술정보 제공

'미테 우그로' 역사·지역적 특징 담아 기록정보 체계화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활용하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미테우그로측 구상이다.

대인 시장에서 작품 활동을 원하는 해외 미술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협업하고 싶어하는 지역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알 길이 없다는 불편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지역작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인시장 아카이브 구축' 등 지역 미술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관련 자료가 대중들에게 쉽게 제공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나마 찾아보기 쉽지 않았던 것도 현실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오랜 역사적 이야기와 지역적 특수성이 담겨 있는 대인시장이나 광주극장, 예술의 거리 등 매력적 공간에 대한 기록 정보를 체계화해 모아놓는 정보창고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오민곤 대인시장 아카이브 담당 매니저는 "아카이브를 통해 대인시장을 찾는 해외 미술계 인사들과 지역 젊은 작가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협업이 이뤄지는 등 국내외 작가간 교류를 통한 지역 미술의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2 광주폴리 설계공모 전국 51개 작품 응모

고석홍·김미희 'Memorial Box of the citizen-' 최우수작

광주와 광주비엔날레는 29일 도심 공공 시설물인 '2012 폴리 프로젝트'의 대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고석홍·김미희씨가 출품한 'Memorial Box of the citizen, by the citizen, for the citizen'이라는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계 인사인 중국의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 국내 최고의 설치미술가 서도호씨 등과 함께 광주 폴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석 등의 작품은 ▲광주지역 여러 장소를 이동하거나 여러 조각이 프로그램에 따라 합쳐지거나 조합될 수 있고 ▲시민 생활과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는 공모 내용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는 '광주 폴리'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이뤄진 것

로, 전국에서 51개 작품이 응모했다.

또 3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 우수작으로는 ▲태양관중의 도시(최이규) ▲성황나무(배상훈·박문성) 등 2개 작품이 뽑혀 했다.

이외 ▲공동의 방(최영준) ▲도시인의 휴식-해바라기 계단(정태중) ▲바늘구멍을 통해 담은 빛의 도시 광주의 활라(이상훈·안호진) ▲두루마리 폴리(황효석) ▲도시농장(남승운·김진희) 등은 입선작으로 1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한편, 광주 폴리(Folly)는 광주 도심에 체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의 공공 조형물을 조성, 문화 자산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 지난해 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로 추진돼 11개가 설치돼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등도서관 '영클샘 독서캠프'

광주무등도서관 아메리칸 코너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영클샘 여름독서캠프 2012'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독서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미국 우수 아동도서 수상작 전시회 ▲미국 여행 등 주제별 특별 전시회 ▲주한미국대사관 외교관과 함께하는 동화구연 ▲어린이 팝업북 만들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미국 관련 퀴즈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동화 구연 및 어린이 팝업북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은 사전에 참가 등록을 해야만 한다. 문의 062-613-7757. /김지을기자 dok2000@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 본점 062_227_9940
- 목포점 061_262_9200
- 서울점 02_765_9940
- 총장점 062_227_9970
- 장흥점 080_222_9975
- 순천점 061_752_9940

다들필로 라텍스 침대 150평

세계최고 수면과학 다들필로 Duniopillo

고객님의 매트리스는 아래와 같습니까?

머리 어깨 척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

5% 15% 60% 15% 5%

수면시 힘의 분포도

원목가구(종합) 100평

직수입 이태리가구 200평 1~3층

NAVER **홍스페이스** 검색

쇼핑몰 www.hong79.com(홍친구닷컴)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50평 / 매트리스 체험관 오픈! ☎ 1899-0240

홍스페이스 SPACE